

## '北내고향 출전' AWCL 위해...수원FC-충남아산전 경기장 변경

등록 2026.05.07 14:09:03



[서울=뉴스시스] 프로축구 K리그 엠블럼 깃발. (사진=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)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 김진엽 기자 =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17일 진행되는 K리그2 수원FC와 충남아산의 경기 장소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변경했다.

연맹 측은 7일 "20일과 23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(AFC) 여자 챔피언스리그(AWCL) 4강 및 결승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12라운드 경기를 수원FC 홈 경기장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 홈인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바꾼다"고 설명했다.

이에 따라 10월25일 열리는 30라운드 충남아산-수원FC의 경기는 기존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수원종합운동장으로 변경된다.

2025~2026시즌 AWCL은 WK리그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맞대결이 성사돼 이목을 끌고 있다.

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북한 여자 축구팀이 방한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.

두 팀은 오는 20일 오후 7시 맞대결을 펼치며, 승리하는 구단은 23일 멜버른 시티(호주)-도쿄 베르디(일본)전 승자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다.

한편 연맹은 "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15라운드 전북현대와 김천상무 경기는 킥오프 시간을 기존 오후 4

시 30분에서 10분 늦은 4시 40분으로 변경한다"며 "변경 사유는 전북 홈경기 이벤트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해서다"고 덧붙였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